

‘휴가중 독서, 너무나 당연’

〈출판저널〉 각계 인사 24명 간이설문조사
현실은 그렇지 않아 아쉬움… 문고판 보급 등 여건 조성도 필요

휴가와 책읽기. 우리네 레저 풍토에선 사뭇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조합이다. 그럼에도 많은 식자들은 우리 휴가문화와 책의 친화를 묻는 질문에 “당연한 얘기”라고 입을 모았다. 휴가철에 즈음, 〈출판저널〉이 각계 인사 24명에게 휴가계획과 휴가철 책읽기, 읽을만한 책에 관해 긴급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휴가 기간에도 당연히 책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대답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 ‘휴가와 책’의 어울림. 허나 현실은 전혀 다르다. 휴가란 모름지기 책 따위와 담쌓고 상쾌하게 머리 식히는 모처럼의 해방공간으로 통한다. 나의 내면과 소통하기보다, 나 아닌 외부의 분방한 모든 것들에 취하고 흐드러지는 것이야말로 휴가의 미덕으로 치부된다.

그러나 〈출판저널〉은 감히 휴가철 책읽기를 제안해 본다. 여행은 여행이되, 책이 있는 길을 떠날 것을 권해 본다.

김영주 토지문화관장은 “여행중 호텔, 여관 등에서 숙박할때는 집에서보다 책이 더 필요하다”며 “휴가때 나름대로 (독서)계획을 짜고, 사색하고, 구상, 정리하며, 이에 맞는 책을 갖고 가는게 좋다”고 본인의 체험을 빌려 진지하게 휴가지의 독서를 권했다. 허병두 책따세 대표(송문고 교사)는 책은 항상 들고 다니는 것임을 전제, “휴가와 무관하게 어디서나 들고 다녀야 하며, 특별히 (그런 풍토에 관해) 서구와 비교한다는 것조차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광규 한양대 교수도 “잠시 혼자 있을 때, 차로 오랫동안 이동할 때, 경치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책을 보는 것도 좋다”고 권했다.

다만 조금은 다른 의견도 있었다. 유성호 한국교원대 교수는 “책을 읽는다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휴가중에 읽는 책들이 본적 독서와 거리가 있다”고

말한 그는 “휴가는 휴가대로 즐기고, 책은 다른 시간을 이용해서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색다른 의견을 보였다.

어떤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에 관한 견해도 다양했다. 에릭양 랜덤하우스 아시아 대표는 “외국에는 문고판 사이즈가 많지만, 우리나라엔 그런 자그마한 사이즈의 책이 없어 아쉽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임지호 서평가는 “책을 진지하고 무겁게 생각하다보니 잘 안 읽게 된다”며 “책도 트럼프나 오락물처럼 가볍게 읽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한편 설문에 응한 분 가운데 3분의 1 가량이 휴가계획이 ‘있다’고 대답했다. 설문조사 시점이 아직 본격휴가철이 되기 전이었던 때문으로 짐작된다. 응답자들은 또 평소 읽고 싶었거나, 읽어볼만한 책들을 나름대로 추천 해주었다. 응답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소개한다.

설문 내용

#1 올 여름 휴가 계획은 있으신지요? 대체로 산이나 바다, 강, 해외 등 어디쯤으로 계획하고 계신지요?

#2 서구에선 책 한두권 정도는 배낭에 넣어가 휴가지에서 책도 읽고 한다는데 우리는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휴가문화도 것처럼 책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즐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휴가철 또는 학생들의 여름방학 기간에 읽을 만한 책을 언뜻 떠올리신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올 여름 읽을 만한 책 한 권을 권해주세요.

▣▣▣ 각계 인사 답변 내용

에릭양 (랜덤하우스 아시아 대표이사)

1. 아직 없음.
2. 좋다. 외국에는 문고판 사이즈가 많다. 우리나라엔 그런 자그마한 사이즈의 책이 없어서 아쉽다. 휴가기간이 짧은 관계로 한 권 정도 읽으면 좋다는 생각이다.
3. 토인비 《역사의 연구》

신종락 (출판유통전문가)

1. 있음, 제주
2. 당연하다.
3. 고전, 교양서

조정훈 (번역가)

1. 없음, 아마도 강원도
2. 당연히 읽어야 한다. 서구에 비해서 휴가가 짧다. 휴가철에 책을 읽을 정도의 느긋한 분위기가 안 되어서 읽을 기회가 많지 않지만, 읽은 것이 좋다.
3. 《소피의 세계》, 청소년 《거꾸로 읽는 세계사》, 초등학생 황선미 작 《마당을 나온 암탉》

오재현 (넥서스BIZ 편집부)

1. 바다
2. 책을 가져간다. 좋다.
3. 법정스님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장영희 《문학의 숲을 거닐다》, 김훈 《강산무진》

김영주 (토지문화관 관장)

1. 아직까지는 모름
2. 여행 중 호텔, 여관 등에서 숙박할 때에는 집에서 보다 더 책이 필요하다. 휴가 때 나름대로의 계획에 대해 사색하고, 구상, 정리하는 등, 거기에 맞는 책을 갖고 가는 게 중요하다.
3. 동서양의 고전, 지혜서, 성서, 대학,中庸, 공자 등... 젊은 시절에는 누구나 고뇌의 시기가 온다. 그럴 때 고전이나 지혜서를 읽어두면 많은 도움이 된다. 지혜서나 고전은 읽는 시점이나 방법에 따라서 새롭게 읽혀진다.

이태근 (휴 살림 연구소 소장)

1. 없음
2. 좋다고 생각
3. 《휴를 살리는 길》

윤태형 (영타임즈 편집국장)

1. 없음
2. 당연히
3. 《블링크》, 《키핑 포인트》

어병두 (책따세 대표)

1. 없음
2. 항상 들고 다녀야 한다. 휴가와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들고 다녀야 한다. 특별히... 휴가와 관련해서 서구와 비교한다는 것조차도 이해 못 함.
3. 책따세의 도서목록 참조

조우석 (중앙일보 기자)

1. 없음
2. 당연히 책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섬진강 이야기》

한근태 (경제 컨설턴트)

1. 미국
2. 일 년에 200권 정도 읽는다. 휴가지에서도 당연히 10권 정도의 책을 갖고 가서 읽을 계획이다.
3. 고전, 그리스 신화, 역사서

안이영노 (문화기획가, 한겨레 문화기획학교 교장)

1. 없음
2. 당연한 얘기다.
3. (스스로는) 잡식성이다. 읽은 책을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옥순(한길사 주간)

1. 가족과 박물관 등을 여행
2. 적극 권장하고 (본인은) 늘 책을 갖고 다닌다.
3. 한길사의 책, 《로마인 이야기》, 새로운 역사 인식이 된다. 해외 여행시에도 도움이 되는 책이다.

유성호(한국교원대 교수)

1. 없음
2. 책을 읽는다는 게 중용한 게 아니다. 어떤 책인가가 중요한데... 휴가 중에 읽는 책들이 본격 독서와 거리가 있다. 휴가는 휴가대로 즐기고, 책은 다른 시간을 이용해서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임지호(서평가)

1. 아직 없음
2. 우리나라에서는 휴가 때 책을 읽는 것에 대해 아직까지 진지하고 무겁게 생각해서 인지, 잘 보지 않는 것 같다. 책도, 트럼프나 오락꺼리처럼 생각하고 그런 의미로 가볍게 읽는 것이 좋다.
3. 《용은 잠들다》 쉽게 읽으면서 생각할 게 많은 책이다.

신민식 이사(워즈덤 하우스)

1. 있다, 아이들 자연학습 위주로...
2. 평소에 못 보니까 휴가 때 읽는다. 당연히 책 목록을 정해서 볼 계획을 갖고 있다.
3. 《삼한지》

권보드레(서울대 국문과 강사)

1. 없음
2. 물론 책을 읽으면 좋지만, 우리나라의 휴가문화가 여유로운 휴가가 아닌 탓에 읽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
3. 추리소설 계열의 프리드리히 뉘렌마트 《약속》

최용식(21세기경제연구소 소장)

1. 없음
2. (본인은) 항상 들고 다닌다. 손에 들고 있어도 막상 잘 읽게 되지는 않지만, 항상 가까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3. 경제서, 동양의 읽기 쉬운 책, 역사관련 책 《사기열전》, 《한비자》, 《손자병법》, 《세계의 편람》, 《십팔사략》

김광규(시인, 한양대 독문과 교수)

1. 해외
2. 우리가 가꿀 문화다. 잠시 혼자 있을 때, 차로 오랫동안 이동할 때, 경치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책을 보는 것도 좋다.
3. 시집

진중권(문화평론가)

1. 없음.
2. 좋다.
3. 모른다.

천대윤(중앙공무원 교육원 교수)

1. 미정, 갈 계획은 있다.
2. 갖고 다녀야 한다.
3. 《이노베이션》

장석주(소설가)

1. 아직 없음, 아마도 제주
2. 당연하다. 평소에 읽고 싶었던, 시간상 읽지 못했던 책들을 시원한 나무그늘에 앉아 읽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다.
3. 《뇌의 문화지도》, 김화영의 《알제리 기행》

박상익(우석대 서양학과 교수)

1. 없음
2. 당연히 읽어야만 한다.
3. 《관계의 연금술》

김선두(화가)

1. 고향
2.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3. 《예술의 철학》, 《박이 태어나는 마을》, 《비상학 부활하는 새 다시 태어나는 밀》, 이창순 문학평론집

윤성우(외대 철학과)

1. 없음, 공부하고 책을 본다.
2. 당연히 그래야 한다.
3. 공지영 산문집 《빛방울처럼 나는 혼자였다》, 《성과 속》